

향토유통업체 빅마트 매각 임박

자급난으로 점포 매각을 추진중인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의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는 빅마트의 매각협상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슈퍼마켓(Super-Supermarket·SSM)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유통시장 판도 변화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빅마트는 13일 최근 지역 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빅마트 매각설과 관련, 두가지 방향으로 점포 매각을 추진중이며 따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매각협상 결과가 나올

L쇼핑·美 투자사와 협상, 이번주중 가닥 잡히나... 유통업계 촉각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지 방향의 매각협상은 첫째, 미국계 투자은행과 광주 첨단점을 리모델링한후 분양하는 안으로 빅마트는 부지면적만 2천800여평에 달하는 첨단점을 증축해 투자은행이 분양을 맡고 운영은 자신들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현재 운영중인 17개 점포 가운데 주월동 빅시티와 매곡점을 제

외한 나머지 점포를 놓고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 빅마트측은 미국계 투자은행과 벌이고 있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자금유입이 가능해 나머지 점포에 대한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상타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빅마트 관계자도 미국계 투자은행보다 대기업 계열사와의

개별 점포 매각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빅마트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L쇼핑 등 2곳으로 빅마트 고위간부가 이번 주 초부터 직접 서울에 올라가 양 사 관계자들을 만나 매각점포와 가격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협상타결로 빅마트 점포가 팔릴 경우 대기업의 SSM 진출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빅마트 매각이 성사될 경우 3천여명에 달하는 빅마트 종사자의 구조조정과 2천여개 협력업체의 납품계약을 파기 등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SSM(Super-Supermarket) = 매장면적 300~800평 규모의 초대형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크기인 식품품 위주의 유통매장이다. 빅마트의 17개 점포중 15개가 여기에 해당돼 매각이 이뤄질 경우 광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빅마트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종사자와 협력업체들이 일 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협상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빅마트는 지난 95년 설립이후 지역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대형마트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력을 과시해왔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 출점으로 자급난이 심해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통 장담그기 체험...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주부들이 13일 담양군 창평면 '기순도 고려전통식품' 공장에서 360년 전통의 재래식 방법으로 죽염된장 등 장을 담그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대한주부클럽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주부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장은 5~6월께 이들에게 배송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中企 제품 전략물자 확인하세요”

대외 무역법 개정 27일 광주 설명회

산업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4일부터 광주광역시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전략물자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개정 대외무역법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대외무역법은 기존법이 규정하고 있던 수출업자 외에도 제조, 수입, 중개업체가 자사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자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받지 않으면 해당 수출, 중개, 수입, 제조업체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 수입 물품이 전략물자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자부는 이런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대해 14일 원주를 시작으로, 수원(15일), 대전(21일), 전주(22일), 청주(23일), 광주(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창원(30일)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 경기지역은 이달 27일부터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매일 정기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완지구에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광주시-농협, 800억 투입 1만2,000평 규모 내년 12월 준공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농산물 직거래와 도소매기능을 겸한 대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된다.

13일 광주시와 농협광주본부에 따르면 박광대 시장과 농협중앙회 이연창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광주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공사에 들어가 2008년 12월 준공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중앙회가 총사업비 800억원을 투입,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1만1천2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2천평 규모로 건립된다.

이 센터는 전국 지방의 10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유통센터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사무실과 집배송장·직판장·소포장·주차장·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상시 고용인원 1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철단·하남·운남지구 등 인근 지역 3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센터는 농협이 산지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확보한 뒤 이를 싼값에 소비자에게도 소매하는 형태로, 경매를 통해 운영되는 기존 농산물시장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및 홍수출하 등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반출에 따른 물류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도 우수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상하이에 물류회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물류전문기업인 한국복합물류(대표이사 김종호)가 중국 상하이에 해외 첫 물류법인을 설립했다.

한국복합물류는 12일 중국 상하이 리전트호텔에서 물류법인 ‘금호화운상해유한공사’ 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설립자본금은 100만달러로 한국복합물류가 90%, 남경금호운태유한공사(금호타이어 중국 남경공장법인)가 10%를 각각 출자했다.

‘금호화운(상해)유한공사’는 금호타이어 중국판매법인의 전국 8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거점간 운송업무에서 향후 국제운송 대리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중국내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Auto Parts)시장을 공략, 3자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올 3월부터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약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이어 2011년 1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공장, 무재해 500만 인시 기록

GS칼텍스 여수공장은 13일 “12일 자정을 기해 무재해 500만 인시(人時)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5월27일과 94년 7월29일 에 이은 3번째 대기록 달성이다.

이는 2005년 5월9일부터 673일 동안 여수공장 내에서 불가항력 사고를 제외한 하루 이상의 작업 손실을 일으키는 상해사고나 설비 손상에 따른 5천만원 이상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인시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합산, 통계해 산정된다.

GS칼텍스는 그 동안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안전관할 교육프로그램인 ‘STOP’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5년 ‘안전마일리지제’, 2006년 ‘무사고·무재해 프로그램인 IIF(Incident & Injury Free)제’ 등 각종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 실행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올 연말 700만 인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공장 이용대 생산지원공장은 “정유산업은 고온 고압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장치 산업 특성상, 위험요소가 상존한다”며 “앞으로도 종업원들의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무재해 작업장을 계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銀 수수료 면제·인하

19일부터 자기앞 수표 발행 등

광주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 등 금융업무에 대한 고객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19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 광주은행간 이체 및 창구 송금, 대여금고 이용 등의 고객 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자기앞 수표발행의 경우 장당 50~300원, 이체는 600~700원, 창구 송금은 800~2천원, 대여금고는 1천~3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아왔다.

또 돈의 액수에 따라 500~600원 받던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500원으로, 600~1천원인 폰뱅킹은 6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300달러 이하 기준 5천원하던 외화송금 수수료는 2천원으로 크게 낮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78,000원**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78,000원)
- 제주도 3박 4일 여행 패키지 (159,000원)
- 제주도 4박 5일 여행 패키지 (169,000원)

문의: 064-744-1109 www.jejuair.net

“끈끈한 사타구니 상쾌하게 탈출하세요”

가능성 남상 속옷 '무스타네르' 히트 세션

www.kissnerpunk.com

1577-2787